

시에라리온 기도편지 제62호

카톡 아이디: jdpr320. Email: jdpr320@gmail.com

현지 연락처 +232 7777 5259

선교의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이곳은 날씨가 더워져서 가만히 있어도 땀통에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런 더위에 일주일 정도 밤마다 정전이 되더니 일주일 정도는 아예 정전이 돼서 이유를 알아보니 제가 사는 지역의 전기공사의 트랜스포머가 타서 그렇다고 합니다. 발전기를 잠깐씩 돌려서 전기를 사용하면서 어둠과 더위 속에서 살다가, 아직도 가끔 정전이 되기는 해도 지금은 전기공급이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무슬림들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라마단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라마단을 지키는 한 아저씨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이슬람의 법이고, 죄가 용서된다고 합니다.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슬람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무슬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사역자 감사주일에배 (Pastor's Appreciation Sunday)

2월 마지막 주일은 사역자 위로겸 감사주일로 드렸습니다. 이곳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회자들의 사례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1년에 한 주일을 정해 목회자 감사주일에배로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이것이 적응이 안되어 이 예배를 마칼교회에 적용해야 할 지 고민을 하다가 현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목회자의 생활을 돌보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작년에 처음 시도를 하였습니다. 올해 두번째로 목회자 감사주일로 드렸는데 서리집사들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준비하여 소박하지만 기쁨과 잔잔한 감동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봉투를 준비한 성도들은 수줍게 존전도사에게 봉투를 건네기도 하고, 자신의 밭에서 키운 고구마를 검정봉지에 담아서 건네는 성도도 있었고, 한 성도는 귀한 닭을 가져와서 존전도사에게 선물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리본을 적은금액으로 구입해서 전도사에게 달아주면서 격려하였고, 교회는 리본을 판 금액을 전액 전도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으로 존전도사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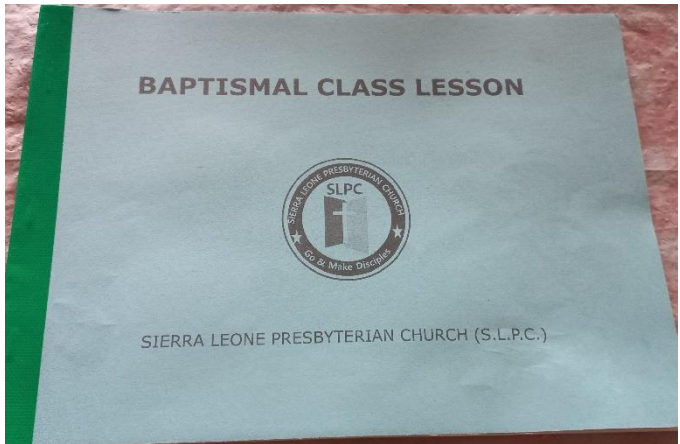
마칼교회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열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교회로 자립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교육

4월 20일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거행하기위해 세례교육 광고를 1년 동안 교회출석을 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몇 주 전에 했었는데 34명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지원자들이 없다가 교회가 설립된 지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생각보다 많은 수가 지원을 하여서 기쁘기 보다는 '이분들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지원할 것일까?'라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곳은 기독교 자료들이 거의 전무하여서 훈련이나 양육을 하려면 책자로 만들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전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세레문답집을 편집하고 제본하여서 나름 문답집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레교육을 하기 전에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세레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문답을 했는데, 지원하고 안 나온 성도들도 있었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성도들은 다음 해에 반도록 안내를 해서 21명으로 줄었습니다.

나머지 지원자들과 주일예배후 4시~6시까지 세레교육을 2주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부터 안 나온 성도들도 있고, 첫 시간에는 출석을 했는데 두 번째 시간에 결석을 한 성도들도 있어서 현재 15명이 남았습니다. 세레교육에 한 번이라도 결석하면 세레를 받을 수 없기에 부활주일 전까지 몇 명이 끝까지 세레교육을 받고 세레를 받을 지 미지수입니다. 기도부탁드립니다.



존전도사 장학금 전달 소식



지인을 통해서 하늘소망선교에서 장학금을 후원해 주셔서 존전도사가 계절학기로 공부하는 단과대학의 미납된 등록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장학금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보티마로부터 기증받은 교회부지

지난번 마보티마에 예배당 건축을 위한 교회부지를 기증받기 위해 기도부탁을 드렸는데 몇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마을에서 교회부지로 약 1,200평 정도의 땅을 기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시에라리온의 오지마을에서 교회를 세우려면 먼저 마을의 이장과 원로들로부터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이슬람 지역인 마보티마 마을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2020년 11월부터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보티마 마을을 들어가려면 두 마을을 더 지나야 합니다. 2020년 11월에 두번째 교회개척을 위해 무교회 지역을 정탐하다가 두 마을도 이슬람 지역이고 교회가 없어서 이장들과 원로들을 만나서 의견을 타진했지만 허락하지 않아서 그 다음 마을인 마보티마로 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뜻이 있으셨는지, 이슬람 지역인데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존전도사를 파송하여 계속 기도처로 모이다가 존전도사가 2023년에 사고를 당하면서 거의 2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퇴원 후에 마보티마에 들어가서 성경공부와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한 준비

교회부지를 기증받아서 몇 주전부터 소수의 마보티마 교회 성도들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서 부지를 정리하고, 땅을 파서 흙벽돌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흙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일이 소요됩니다. 하루는 흙을 파서 모으는 일을 하고, 그 다음날은 물을 부어서 흙이 물을 머금도록 하루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셋째날에는 나무틀에 반죽된 흙을 넣어서 흙벽돌을 만듭니다. 그리고 말리는 데는 3주가 걸립니다.

마을에 웅덩이를 파서 물을 얻기도 하고, 마을에 있는 강가에서 물을 길어 나르며 오토바이로 실어나르기도 하는 등 마을 공동체가 노력봉사를 하였습니다.

마보티마는 마칼보다 더 오지여서 모든 것을 사려면 마케니까지 나와야 하는데 존전도사는 오토바이로 왕복 한 시간 되는 거리를 쌀과 부식재료를 나르고, 매일 오가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의 마보티마 성도들은 처음 부식비로 섬겼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쌀과 부식비를 지원하였고, 존전도사의 오토바이 주류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마보티마 사역을 위해 매달 후원해 주시는 권사님 한 분의 섬김으로 가능했습니다.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교회개척은 개척된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로서 현지인 성도들이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가지며, 자신들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보티마 성도들 안에 예배당의 필요를 느끼고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남을 감사하며, 존전도사의 리더십 아래 현지인들이 전면에 나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고,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저는 측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지인들이 상의하여 예배당은 9m x 18m 크기로, 예배당 뒷면에 복도가 달린 창고 1개와 방1개를 붙여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5월부터 소 우기가 시작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현재는 강바닥의 물도 말라가고 있어서 지체하면 건축에 필요한 물 공급도 어려워집니다.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벽돌을 사용해야 우기에 녹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마을에 들어가기 오래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이곳에 교회건축을 위해 땅을 기증받고 마을 공동체 전체 사람들이 흙벽돌을 만들었는데, 계획했던 예배당 건축을 못하게 되자 애써 만든 흙벽돌은 비에 다 녹아버리고, 기증받았던 땅은 정부 땅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였고 이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재정을 허락하셔서 우기 전에 예배당 건축을 마치고, 이 마을 사람들의 상처 난 마음을 복음으로 치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흙벽돌 준비하는 모습들>





마칼교회는 자매교회인 마보티마 예배당 건축을 위한 흙벽돌을 찍는데 쌀 25kg 한 포대를 지원하기도 하였고, 이번주일부터 건축현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건축비를 후원하시고자 하시면 '건축비'로 표기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을 향해 기도와 귀한 재정으로 시에라리온 선교에 동역해 주시는 동역자님과 동역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는 동역자님의 기도와 후원 없이는 사역할 수 없기에 늘 사랑의 빛진 마음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부탁드립니다.

1. 마칼교회위해

세례지원자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례교육을 잘 깨닫고, 끝까지 잘 마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2. 마보티마교회를 위해

-땅문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채워지고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예배당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져서 우기 전에 건축을 마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도록

-준비된 신실한 사역자를 일으켜 주시도록

3. 저와 존전도사를 위해

-존전도사의 오가는 길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독수리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도록

-피부이식 받은 부위가 새살이 돋고, 뼈가 잘 붙어서 철심을 빼는 수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보행을 하여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제게 성령충만함과 건강을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셔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2025. 3. 17

박정대 올림

후원계좌: 하나은행 920193077-703 (GMS 박정대)

2025년 서울대학교교회 방동위(이미단) 선교사 1월-2월 사역보고

사역보고

주요활동

서울대학교교회 전체섬김이리트리트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2월 27일 저녁은 서울대학교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재확인하고 2024년의 사역상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28일에는 근처의 시화나래 조력공원 달전망대를 구경하고 식사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 26일, 대학원 예배의 노현승 형제와 허민영 자매가 박사 졸업하게 되어
 서 간단한 식사 및 졸업축하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취직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
 합니다.



1월과 2월은 2월에 사용할 전도지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도명함으
 로 할 것인지, 책갈피 모양으로 할 것인지, 멀티슈 형태로 할 것인지 등 여러 논

의가 있었으며 우선 명함형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목요성경공부는 에스겔서로 들어갔으며, 순강학생은 중국 청도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주일에는 근처의 작은 가정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노인들이 대다수이고 동년배의 청년들이 없는 것이 고민이라고 합니다. 왕치 자매는 새가족반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는 수요일 오후 전도 후, 저녁 7시에 있는 서울대학교 수요일린예배에 참여하거나 안양 갈멜산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린예배는 서울대기독교수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되는데, 현재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저희 대학원예배가 금요저녁기도회를 합니다. 이렇게 26동 B101이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사용신청을 하게 되기에 장소사용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장소 사용신청이 원활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수요일전도팀(오후3시-5시)과 금요일전도팀(저녁 5시-7시)이 기쁨으로 성령충만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전도지를 받은 학생들이 교회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성경공부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 왕순강 학생(사범대 박사과정)이 졸업논문관련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왕량량 학생(사범대박사과정) 모친의 당뇨병이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치 학생(서울법대 박사과정)이 졸업논문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원학 학생(언어교육원)의 한국어실력이 날마다 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 장단운(남편 차성호) 자매 부부가 서울 중국인선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 방동위 선교사가 시간관리와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설교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연구할 때 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단 선교사가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아들부부가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필립, 이은영, 사랑, 나탄의 가족 소식

Newsletter From Philip/Evelyn/Sarang Victoria/Nathan

싸바이다~

벌써 2024년의 마지막 날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2024년 11~12월 저희 가정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 교육사역 - W2G Writing Center Education Ministry**

L국의 초.중고등학교들은 8월에 시작한 1학기를 12월말에 마치고 3주 정도의 방학을 가진 후 1월에 2학기를 시작합니다. 로고스 컬리지도 12월 마지막주까지로 1학기 학사일정을 마쳤습니다. 1달간의 방학 후 2월에 2학기가 시작됩니다.

김필립 선생은 영어과 4학년인 분미, 마이바오, 매튜 3명의 학생들과 Writing Center에서 Advanced English class, Servant leadership class를 계속했습니다. 마이바오와 매튜는 몽족으로 크.리.스.찬들이고 라오족인 분미는 아직 애니미즘을 믿고 있습니다. 지난 달 분미와 Servant Leadership class에서 바오를 전했으나 아직 영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미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진행되는 서번트 리더십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바.오 전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노력하며 기회가 닿는대로 또 전하려고 합니다. 조급하지 않고 그분의 때를 기다릴 때 귀한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Sabaidee~

Time seems to pass by real quickly as It's already the last day of 2024.

We bring you news from our family for November to December of 2024.

*** W2G Writing Cente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here have finished the first semester and are taking a three-week vacation. The second semester starts in January. Logos College will also have completed its first semester academic schedule by the last week of December. After a month-long vacation, the second semester will begin in February.

Philip continued the Advanced English class and Servant Leadership class at the Writing Center with three of his fourth-year English students, Bounmi, Maibao, and Matthew. Maibao and Matthew are Hmong, a Lao ethnic group, Christians, and Bounmi is an animist. Last month, Philip sat down with Bounmi during the Servant Leadership class and shared the truth with him, but he has not yet received Him. However, Bounmi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Servant Leadership meetings conducted with a Christian worldview but has no aversion to it. Philip will continue to do this and share it again as soon as he gets the chance. We believe that there will be a great result if we wait for His timing without being impatient. Please join us in lifting this up to Him.

- * W2G학생들과 크리스마스 파티
- * Having a Christmas lunch with the W2G students

* 현지인 가정 사역 - Community Life Building 사역

Community Life Building에 살던 자매들이 10월에 이사간 이후로 아직 건물을 비어 있고, 저희들은 새로 들어올 지체들을 찾으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 전혀 모르는 믿지 않는 지체 / 이미 마음을 받아들였으나 거룩한 습관을 훈련해야 하는 지체들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기도하며 찾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비하신 귀한 만남이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손모아 주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의 더딘 발걸음에 늘 함께 동역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고 건강하길 함께 기도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L국 김필립, 이은영, 사랑/나단 드림

* Community Life Building

Since the sisters who lived in the Community Life Building have moved out in October, the building has been empty. We are looking for new members to join whether they are non-believing members or those who have already accepted the truth but need to train holy habits. We are open to having these two possibilities come and live in the CLB. Please join us so that the precious meeting He has prepared can take place at His timing.

Thank you for always walking with us on our journey together.
May His peace always be with you and always stay healthy.

December 31, 2024
Philip, Evelyn, Victoria, Nathan



영어권 수련회 준비 커미티 멤버들과 함께 Dinner with the English-Speaking Retreat Committee members
(영어권 사역자들의 경우 사진에 대한 보안이 훨씬 엄격해 일부 사진을 가렸습니다)

기도제목

1. 2025년도 그 분의 시간과 뜻 가운데 늘 동행할 수 있도록
2. 교육이라는 매개체로 만나는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3. Community Life Building에 새로 들어올 지체들과의 좋은 만남을 위해
4. Writing Center가 학생들의 지적/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장소가 되기를
5. 분미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6.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말씀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늘 건강할 수 있도록

Things to lift up

1. To walk in accordance to His timing and will in 2025
2. To be able to share the truth with those that we build a relationship with through the educational path He has put us on
3. To have the right person/people come into the CLB
4. For the W2G Writing Center to be a place where the students grow intellectually and spiritually
5. For the truth to penetrate into Bounmi's life and heart
6. For our family to be even more deeply rooted into His Word and be healthy.

인도네시아 소식

김귀영

- Mobile : +62 852 1668 7275
- E-mail : paulkim1960@gmail.com
- kakaotalk : paulkim2030

조주현

- Mobile : +62 813 8630 0342
- E-mail : joy706@hanmail.net
- kakaotalk : joy706

장기 기도제목

1. 인도네시아 2억 7천만 영혼구원을 위해 10개 전략 지역 안에 기도자학교, 재생산 전도/제자/가정교회 배가훈련원이 세워져 교회개척운동이 누룩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2. 3천 2백만 자카르타 수도권 10개 지역에 기도자학교, 재생산전도/제자/가정교회 배가 훈련원 사역이 활발히 일어나 지역마다 100개의 가정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3. 인도네시아 주요 10개 교단과 신학교에 재생산 전도/제자/가정교회 배가 훈련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무슬림들을 위한 교회개척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4.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생산 전도/제자/가정교회 배가 훈련이 확산되게 하소서!

단기 기도제목

1. 무슬림 가운데 믿고 세례 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2. 라마단 금식 기간에도 전도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3. 싸울루스 고등학교 누수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소서
4. 대학생 모임이 활성화 되게 하소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 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사 46:3-4)

살롬!

태에서 남으로부터 우리를 안고 업어 주시며,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동역자님과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인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늘(3월 1일)부터 이슬람 라마단 30일 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앞으로 한 달간 해가 있는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예년과 다르게 금식 시작일을 전후로 해서 일주일 간 학교들이 휴교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월에는 학생들이 2주 간만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라마단 금식이 끝난 후 일주일 간 또 쉬기 때문이지요. 쉴 때는 좋지만 나중에 밀린 수업을 보충하려면 교사도 학생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슬림들의 이 금식 기간은 종교적으로 아주 민감한 시간입니다. 이 때는 무슬림들에 대한 언행을 조심하라고 한국 대사관에서 한인들에게 공지를 하곤 합니다. 또 금식 기간에는 모든 일들의 진행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들의 문화로 이해하며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2025년을 맞이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월과 2월 사역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슬림배경신자 세례

1월 30일, 무슬림이었던 A 부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지역 인사 P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무슬림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앞으로 A 부인과 P 씨가 가정교회를 통해 신앙이 계속 성장되고 하나님 가족 간의 진정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많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슬림배경신자 가정교회



지난 기도편지에 기도 부탁드렸던 것처럼 C 지역에 가정교회가 개척되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가정교회를 통해 그 지역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교회 성도들의 경제 상황이 대부분 어렵습니다. 또한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 의료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 노인의 경우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경제 상황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슬림들과 복음 대화



지난 기도 편지에 이어 이번 기도 편지에서도 무슬림들과 복음에 대한 대화를 한 것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대화는 1월 24일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무슬림 17명과 “창조”라는 주제로 성경과 꾸란에 나타난 구절들을 비교하며 상호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1-5절, 요한복음 1:1-5, 14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꾸란 Fuṣṣilat 41: 10-12를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 창조,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창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꾸란은 창조에 대한 기록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슬림들도 창조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며 예수님이 창조자

이심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꾸란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구절과 연결하여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과 연결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대학생 사역

대학교의 새학기가 시작되어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과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매우 협소해서 다수의 학생들은 초청하지 못하고 소수의 학생들만 초청하여 떡볶이를 먹으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비전트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트립의 계획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불교인 대상 전도법 훈련

2월 9일, 중국계가 많이 사는 한 지역 교회의 요청으로 불교인에게 맞는 전도법을 훈련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였고, 궁금해 하는 것이 많아 Q&A 시간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시간이 부족해서 직접 나가서 실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간을 다시 정해 실습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성도들이 배운 전도법으로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담대히 전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빠울루스 고등학교

건기로 들어가고 있는 자카르타와 달리 빠울루스 고등학교가 있는 짜안주르 지역은 아직도 매일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번 물 새는 문제 때문에 수리했던 학교 지붕에 다시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빠울루스 고등학교도 현재 일주일 간 휴교 중인데 이 기간 동안 수리가 마쳐지기를 바라지만, 이슬람 금식 기간이라 기술자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기술자가 빨리 찾아져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수리하게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귀영 · 조주현 올림

God Bless you!